

NEAR사무국, 한국 회원단체 ‘국제관계대사 간담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스크랩

2023.04.24.(월)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신문	영남일보	NEAR 사무국, 전국 시·도 ‘국제관계대사 간담회’ 개최	
2	신문	세명일보	NEAR 사무국, 전국 시·도 ‘국제관계대사 간담회’ 개최	
3	인터넷	경북인터넷뉴스	NEAR사무국, 전국 시·도 국제관계대사 간담회	
4	인터넷	세계타임즈	NEAR사무국, 전국 시·도 국제관계대사 간담회 개최	
5	인터넷	대구경북뉴스	“교류 협력 통한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 꾀한다!” NEAR사무국, 전국 시·도 ‘국제관계대사 간담회’ 개최	
6	통신사	NSP통신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전국 시도 ‘국제관계대사 간담회’ 개최	
7	통신사	서울뉴스통신	전국 시·도 ‘국제관계대사 간담회’ 개최	

NEAR 사무국, 전국 시·도 '국제관계대사 간담회' 개최

임성수 | 입력 2023-04-23 발행일 2023-04-24 제23면 수정 2023-04-23 14:41



지난 21일 경북 포항TP에서 열린 'NEAR 국제관계대사 간담회'에 참석한 각 시·도 국제관계대사들이 NEAR 발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NEAR 제공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지난 21일 경북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에서 한국회원단체 (16개 시·도) 국제관계대사 11명을 초청, 'NEAR의 발전 및 한국 지자체들의 적극 참여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제관계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동북아시아 다자간교류 협력 플랫폼인 'NEAR'의 역할과 올해 활동 계획을 소개하고, 풍부한 국제교류 경험을 가진 국제관계대사들로부터 NEAR의 발전방안 및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국내회원단체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사무국 출범 후 처음으로 국내회원단체 국제관계대사들을 사무국 소재 지인 포항으로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NEAR는 동북아 6개국 79개 지방정부의 다자교류 협력 플랫폼으로서 지방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보유한 소중한 국제 공공재임을 강조하고, 각 시·도의 국제행사 홍보 등 NEAR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도 국제관계대사들은 "이번 간담회는 동북아시아 내 NEAR의 지금까지 역할과 활동 상황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NEAR를 활용한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NEAR는 1996년 9월 한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에서 창설된 동북아 지방정부 간 협력기구로, 현재는 몽골과 북한까지 포함한 6개국에서 79개 광역 지자체가 정식 회원으로 가입해 경제·관광·환경·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꾀하고 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프린트

취소

NEAR사무국, 전국 시·도 ‘국제관계대사 간담회’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지난 21일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에서 한국회원단체(16개 시·도) 국제관계대사 11명을 초청해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의 발전 및 한국 지자체들의 적극 참여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제관계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동북아시아 다자 간 교류 협력 플랫폼인 ‘NEAR’의 역할과 금년도 활동 계획을 소개하고, 풍부한 국제 교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제관계대사들로부터 NEAR의 발전방안 및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 강화, 국내 회원단체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사무국 출범 후 처음으로 국내 회원단체 국제관계대사들을 사무국 소재지인 포항으로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NEAR



국제관계대사 간담회 <경북도 제공>

는 동북아 6개국 79개 지방정부의 다자 교류 협력 플랫폼으로서 지방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보유한 소중한 국제 공공재임을 강조하고, 각 시·도의 국제 행사 홍보 등 NEAR의 역할을 확대 하

겠다”고 말했다.

또한 “NEAR가 명실상부한 동북아 지방정부의 다자 간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시·도 국제관계대사들은 동북아시아 내 NEAR의 지금까지 역할과 활동 상황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 NEAR를 활용한 다양한 국제 교류 사업을 펼칠 의사를 밝혔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에서 창설된 동북아 지방정부 간 협력 기구로, 현재는 몽골과 북한까지 포함한 6개국에서 79개 광역 지자체가 정식 회원으로 가입해 경제·관광·환경·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구(진기훈), 인천(장제학), 광주(박선철), 대전(이형중), 울산(박철민), 강원(심재현), 충남(조태익), 전북(류창수), 전남(박영식), 경남(김병연), 제주(고윤주) 관계대사들이 참석했다.



경북인터넷뉴스



뉴스룸 오피니언 인사이드 시민참여

회사소개 독자(후원)가입 기사제보 전국네트워킹

NOIMAGE
이미지가 없습니다



NEAR사무국, 전국 시·도 국제관계대사 간담회



순천향대 구미병원

뉴스룸 > 기관단체

NEAR사무국, 전국 시·도 국제관계대사 간담회

기사입력 2023-04-21 14:00

복사 목록 인쇄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은 21일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에서 한국회원단체(16개 시·도) 국제관계대사 11명을 초청하여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의 발전 및 한국 지자체들의 적극참여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제관계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동북아시아 다자간교류 협력 플랫폼인 ‘NEAR’의 역할과 금년도 활동 계획을 소개하고, 풍부한 국제교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제관계대사들로부터 NEAR의 발전방안 및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국내회원단체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사무국 출범 후 처음으로 국내회원단체 국제관계대사들을 사무국 소재지인 포항으로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며, “NEAR는 동북아 6개국 79개 지방정부의 다자교류 협력 플랫폼으로서 지방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보유한 소중한 국제 공공재임을 강조하고, 각 시·도의 국제행사 홍보 등 NEAR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많이 본 기사

☐ 신천지자원봉사단 구미지부



☐ 창립 39돌 신천지예수교회



☐ 해외 15개국 신천지예수교회 간판 달고 말씀 배운다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 확정



☐ 청년 자원봉사단 위아원



“세상을 바꿉니다”

사건, 사고, 미담등 기사제보해 주세요.

기사제보 054) 452-8030

온라인제보 >

베스트기사

[독자투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 환영함...

[경북도정뉴스] 경북도, 공공주도 지역상생 동력발전...

[경북도정뉴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의 ...

[구미시정뉴스] 구미시 가을철 악취 은행나무 잡을 수...

[경북도정뉴스] 20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자원봉사자..

[경북도정뉴스] 경북도,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 개최

[경북도정뉴스] 이철우 도지사, 장애인일자리 모범기...

[구미시정뉴스] 신공항 경제권, 구미시가 선제적 준비...

[기업체소식] 주부들의 스파이크! 제 29회 LG기 주부...

[경북도정뉴스] 경북자치경찰위원회, 구미 교통안전 ...

Hot 포토이슈

2 / 2

또한 “NEAR가 명실상부한 동북아 지방정부의 다자간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시·도 국제관계대사들은 동북아시아 내 NEAR의 지금까지 역할과 활동 상황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NEAR를 활용한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펼칠 의사를 밝혔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에서 창설된 동북아 지방정부 간 협력기구로, 현재는 몽골과 북한까지 포함한 6개국에서 79개 광역 지자체가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여 경제·관광·환경·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구(진기훈), 인천(장제학), 광주(박선철), 대전(이형중), 울산(박철민), 강원(심재현), 충남(조태익), 전북(류창수), 전남(박영식), 경남(김병연), 제주(고윤주) 관계대사들이 참석했다.

최현영/기자 (gbinews9472@hanmail.net)



지구환경측정(주), 경상북도·가정위탁 보호사업기부금 후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지역사랑상품권 구입



설맞이 경북도청 대변인실 전통시장 장보기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



♥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십니까?

기사후원하기 >

구독신청하기 >

여러분의 후원이 경북인터넷뉴스의
가장 큰 힘입니다!

경북인터넷뉴스 후원하기 >

후원/행사취재요청

☎ 053-452-8030

iNEWS 기관단체 관련기사

호산대 유아교육과, 한국사 가르친다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박정희대통령과 함께하는 추억 여행 감따기
구미시설공단, 포항 태풍 피해복구 봉사
구미소방서, 교통사고 방지 특별교육 시행

댓글 0

작성자

비밀번호

내용은 5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팸방지코드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쓰세요.



[새로고침]

0/500

이전

이전페이지로 돌아가기

맨위로

경북인터넷뉴스
gbin.co.kr

독자공간 > 기사제보 독자(후원)가입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회사소개 > 회사소개 윤리(편집규약)강령 사업영역 오시는길 전국네트워크

구독신청하기

경북인터넷뉴스 주소: 경북 구미시 구미중앙로42길 5-66 거승빌딩 3층 제보·광고문의: 054-452-8030 팩스: 070-7016-1481 E-mail: gbinews9472@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6.15 등록번호: 경북아00012호 사업자등록번호: 513-13-50928 통신판매번호: 제2008-5080133-30-2-00162호

발행인: 최현영 편집인: 최현영 청소년보호책임자: 최현영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Copyright by gbin.co.kr All rights reserved.



HOME > 세계로컬핫뉴스 > 경북

NEAR사무국, 전국 시·도 「국제관계대사 간담회」 개최

한성국 📧 / 기사작성 : 2023-04-21 09:08:14

[경북 세계타임즈=한성국 기자] 동북아시아지체연합(NEAR)은 4월 21일(금)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에서 한국회원단체(16개 시·도) 국제관계대사 11명을 초청하여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의 발전 및 한국 지자체들의 적극참여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제관계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동북아시아 다자간교류 협력 플랫폼인 'NEAR'의 역할과 금년도 활동 계획을 소개하고, 풍부한 국제교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제관계대사들로부터 NEAR의 발전방안 및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국내회원단체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사무국 출범 후 처음으로 국내회원단체 국제관계대사들을 사무국 소재지인 포항으로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며, “NEAR는 동북아 6개국 79개 지방정부의 다자교류 협력 플랫폼으로서 지방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보유한 소중한 국제 공공재임을 강조하고, 각 시·도의 국제행사 홍보 등 NEAR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NEAR가 명실상부한 동북아 지방정부의 다자간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시·도 국제관계대사들은 동북아시아 내 NEAR의 지금까지 역할과 활동 상황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NEAR를 활용한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펼칠 의사를 밝혔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에서 창설된 동북아 지방정부 간 협력기구로, 현재는 몽골과 북한까지 포함한 6개국에서 79개 광역 지자체가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여 경제·관광·환경·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구(진기훈), 인천(장제학), 광주(박선철), 대전(이형중), 울산(박철민), 강원(심재현), 충남(조태익), 전북(류창수), 전남(박영식), 경남(김병연), 제주(고윤주) 관계대사들이 참석했다.

“교류 협력 통한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 꾀한다!”

NEAR사무국, 전국 시·도 ‘국제관계대사 간담회’ 개최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등록 2023년04월21일



▲ NEAR사무국, 전국 시·도 ‘국제관계대사 간담회’ 개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4월 21일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에서 한국 회원단체(16개 시·도) 국제관계대사 11명을 초청하여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의 발전 및 한국 지자체들의 적극참여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제관계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동북아시아 다자간교류 협력 플랫폼인 ‘NEAR’의 역할과 금년도 활동 계획을 소개하고, 풍부한 국제교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제관계대사들로부터 NEAR의 발전방안 및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국내 회원단체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사무국 출범 후 처음으로 국내회원단체 국제관계대사들을 사무국 소재지인 포항으로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NEAR는 동북아 6개국 79개 지방정부의 다자교류 협력 플랫폼으로서 지방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보유한 소중한 국제 공공재임을 강조하고, 각 시·도의 국제행사 홍보 등 NEAR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NEAR가 명실상부한 동북아 지방정부의 다자간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시도 국제관계대사들은 동북아시아 내 NEAR의 지금까지 역할과 활동 상황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NEAR를 활용한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펼칠 의사를 밝혔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에서 창설된 동북아 지방정부 간 협력기구이다.

현재 몽골과 북한까지 포함한 6개국에서 79개 광역 지자체가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여 경제·관광·환경·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구(진기훈), 인천(장제학), 광주(박선철), 대전(이형중), 울산(박철민), 강원(심재현), 충남(조태익), 전북(류창수), 전남(박영식), 경남(김병연), 제주(고윤주) 관계대사들이 참석했다.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전국 시도 ‘국제관계대사 간담회’ 개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3-04-21 19:10 KRX7

#경북도 #동북아자치단체연합 #국제관계대사 #간담회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은 21일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에서 한국회원단체(16개 시·도) 국제관계대사 11명을 초청해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의 발전 및 한국 지자체들의 적극참여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제관계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 경상북도)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은 21일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에서 한국회원단체(16개 시·도) 국제관계대사 11명을 초청해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의 발전 및 한국 지자체들의 적극참여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제관계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동북아시아 다자간교류 협력 플랫폼인 ‘NEAR’의 역할과 금년도 활동 계획을 소개하고, 풍부한 국제교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제관계대사들로부터 NEAR의 발전방안 및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국내회원단체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사무국 출범 후 처음으로 국내회원단체 국제관계대사들을 사무국 소재지인 포항으로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며, “NEAR는 동북아 6개국 79개 지방정부의 다자교류 협력 플랫폼으로서 지방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보유한 소중한 국제 공공재임을 강조하고, 각 시·도의 국제행사 홍보 등 NEAR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NEAR가 명실상부한 동북아 지방정부의 다자간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시·도 국제관계대사들은 동북아시아 내 NEAR의 지금까지 역할과 활동 상황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NEAR를 활용한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펼칠 의사를 밝혔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에서 창설된 동북아 지방정부 간 협력기구로, 현재는 몽골과 북한까지 포함한 6개국에서 79개 광역 지자체가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여 경제·관광·환경·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꾀하고 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URL : <https://www.nspna.com/news/?mode=view&newsid=633274>

전국 시·도 '국제관계대사 간담회' 개최

✎ 박영기 ✎ 승인 2023.04.21 08:44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강화, 회원단체 참여 확대 방안 등



동북아자치단체연합은 21일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에서 국제관계대사 11명을 초청하여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의 발전 및 한국 지자체들의 적극참여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제관계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 = 서울뉴스통신】 박영기 기자 = 동북아자치단체연합(NEAR)은 21일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에서 한국회원단체(16개 시·도) 국제관계대사 11명을 초청하여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의 발전 및 한국 지자체들의 적극참여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제관계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동북아시아 다자간교류 협력 플랫폼인 'NEAR'의 역할과 금년도 활동 계획을 소개하고, 풍부한 국제교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제관계대사들로부터 NEAR의 발전방안 및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 국내회원단체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임병진 NEAR 사무총장은 "사무국 출범 후 처음으로 국내회원단체 국제관계대사들을 사무국 소재지인 포항으로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며, "NEAR는 동북아 6개국 79개 지방정부의 다자교류 협력 플랫폼으로서 지방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보유한 소중한 국제 공공재임을 강조하고, 각 시·도의

국제행사 홍보 등 NEAR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도 국제관계대사들은 동북아시아 내 NEAR의 지금까지 역할과 활동 상황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NEAR를 활용한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을 펼칠 의사를 밝혔다.

한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에서 창설된 동북아 지방정부 간 협력기구다.

현재는 몽골과 북한까지 포함한 6개국에서 79개 광역 지자체가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여 경제·관광·환경·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꾀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구(진기훈), 인천(장제학), 광주(박선철), 대전(이형종), 울산(박철민), 강원(심재현), 충남(조태익), 전북(류창수), 전남(박영식), 경남(김병연), 제주(고윤주) 관계대사들이 참석했다.



박영기 pakryk2002@maver.com